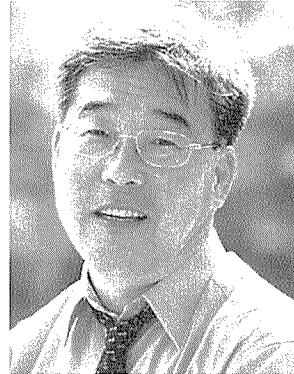


‘황금알’의 지혜는 하루 알 한개다



신동현

· 협회 전무/농업전문 PD
· 저서 : 신PD도 언젠가는 농촌간다
 이제는 농사도 따따를 벤처다

구나 꿈꾸는 이솝우화 이야기, 황금닭 이야기다. 황금닭은 매일 황금알을 낳았다. 하루도 빠짐없이 황금알을 낳아주니 가난했던 농민은 어느덧 부자가 되어 있었다. 그러던 어느날, 이웃에 사는 한 농민이 찾아왔다. “여보게, 하루에 한개씩 황금알을 받는 것보다 배를 가르면 몽땅 황금알을 꺼낼 수 있을텐데… 황금닭의 배를 가르면 어떨까?” 결국 황금닭은 죽는다. 그리고 죽은 닭 어디에서도 황금알은 찾을 수가 없었다. 여기서 얻는 평범한 교훈 한 가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기회(돈버는 기회, 출세하는 기회 등)–하지만 욕심이 과하면 모든 걸 잃는다. ‘황금닭 기회’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다. 또 소리소문 없이 우리 곁에 오기도 한다.

지난달 8월 5일, 긴급 채란분과위원회(위원장 김선웅)가 열렸다. 위기감 때문이었다. 위기감의 실체는 가격하락. 이대로 가다간 채란농민들은 모든 걸 잃을 수 있다. 지난 3월에 147원 하던 계란가가 4월 이후부터 계속 조금씩 떨어지더니 7월에는 107원까지 떨어졌다. 떨어진 107원도 말이 107원이지 DC폭 35원을 계산하면 실제 농민이 받는 수취가격은 72원 선이다.

농림부 자료에 의하면 계란 1개의 생산원가인데 83원이라면 계란 1개를 팔면 11원씩 손해를 보는 구조다. 하루 5만개의 계란을 생산하는 농민이 있다면 자그마치 하루 55만원어

치의 고통을 겪게 된다. 문제의 위기의식은 여기가 종착점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해를 넘겨 2006년이 되면 계란가격이 올해에 반토막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 이 지경이라면 농민들은 끝장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채란분과위원회가 진행되었다. 회의결과 산란종계·부화장에 9월 한달간 병아리 생산을 중단하고 10월부터 12월까지 매월 200만수 이내로 병아리를 생산하도록 하는 요구안을 결의하였다. 이 안은 현재 280만수 이상의 산란실용계를 줄이는 뼈를 깎는 아픔이다. 이를 보면서 “시장은 참 무섭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지난 봄, 양계농민들은 신바람이었다. 닭의 해를 맞이하여 방송홍보가 잘된 탓도 있었겠지만 소비도 괜찮았고 가격도 최상이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오래 가질 못했다. 몇 달을 못 버티고 계란가는 하향곡선을 그렸다.

전문가들의 진단은 의외로 간단했다. “닭 숫자가 많이 늘었어요. 통계로도 계란가격이 좋던 3월에 4,800만수이었는데 6월말 5,400만수까지 늘었지요. 600만수 차이인데 1원을 따지는 계란시장에서는 대단히 예민하게 반응하지요.” 이 말을 곱씹어 보면 하루에 황금알 1개가 시장규모인데 돈을 더 좀 벌겠다고 배를 가르는 욕심때문에 계란가의 하락을 가져왔다는 의미로 해석 된다. 닭 600만수(12.5%) 증가가 시장을 교란해 계란값 하락의 주범이 된 것이다.

닭 600만수 증가는 어찌 된 일일까? 이는 나쁜 일인가? 아마 이것도 시장논리가 아닐 듯 싶다. 돈 싫어하는 농민이 있을까? 돈보고 생산을 거꾸로 가기가 그리 쉽지는 않은 것이다. 그래서 농민들은 ‘환우’도 즐기고 노계도 빼지 않았을지 모른다. 하지만 늘 양계인들은 말한다. ‘환우’가 몸에 이롭지 못하다는 거. 알면서 대다수 양계인들은 환우를 하고- 환우를 돈 버는 수단으로 안다- 황금닭을 죽여 버리는 우를 범한다.

이번 감축안은 극약처방이다. 다행히 종계·부화인들이 채란인들의 결의를 심각하게 받아 들였다. 이들은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병아리를 생산예정량의 70%인 월 200만수씩 제한해 생산하기로 결정하였다. 5시간 전통 끝에 나온 결정이다. 이런 결정을 해준 부화인들에게 경의와 박수를 보낸다. 사실 부화인들이라고 욕심이 없겠는가? 그러나 공멸은 막아야겠다는 심정에서 지혜스런 결정을 내려 주었다.

‘황금알’의 지혜는 하루 알 한개다.

여담이다. 황금알을 요즘 돈으로 환산해 보자. 얼마정도일까? 보통 건빵 크기를 금2냥으로 본다면 계란60g이면 금10냥 이상은 될 것이다. 돈으로 치면 6백만원(금1냥60만원*10냥) 정도(?). 쌀30가마 이상의 가치일 것이다. 이정도 이상의 황금알을 우리 양계인들이 매일 계란 팔아 얻는다면 더 무슨 욕심이 일까? ☺